

농촌, 행정·복지·의료·금융시설 한데 모은다

농어촌공 공간포럼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읍면 소재지 900곳에 기초생활거점 조성 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생활SOC 기능 복합시설' (가칭 '다가치센터') 조성 계획을 밝혔다.

'다가치센터'는 행정복지센터·의료보건·금융시설 등을 한데 모은 SOC 복합시설로, 오는 2022년까지 900곳 이상의 농촌지역에 건립 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토목·건축 중심의 인프라 투자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에 밀접한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7일 주최한 '3회 농촌공간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강석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농촌생활SOC 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3회째인 이번 포럼은 고흥화마을 과소화 등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농촌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공동체 회복 등을 논의했다. 정부, 공사, 학계, 주민 등 농촌 지역개발 관련 종사자 50여 명이 이날 '농촌 생활SOC와 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이강석 사무관은 농촌 생활SOC 확충을 위한 생활SOC 기능 복합시설 공급 계획과 인센티브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생활SOC는 교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 생활에서 편익을 높이는 모든 시설(인프라)을 말한다.

이 사무관은 "전체 농촌인구의 5분의 1(18.3%)에 달하는 175만명이 서비스 접근성 하위 20%에 들 정도로 농촌지역 생

활 서비스 여건이 취약하다"며 "병원·은행 등 31개 생활서비스 시설 중 15분 안에 갈 수 없는 시설이 70% 이상인 마을은 3000곳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지역개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농촌 생활권('365 생활권')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365 생활권'은 농촌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건·소매 등 기초생활 서비스를, 60분 안에 문화·복지 등 고차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을 뜻한다. 이를 위해 기존 299곳을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500곳의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고 100곳 이상의 고차·복합서비스 공급 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또 다른 정책으로는 '농촌생활SOC 확충'을 내걸었다. 정부는 올해 생활SOC 투자를 8조6000억원 규모로 지난해(5조8000억원)보다 48% 대폭 확대했다. 농림부는 오는 2022년까지 생활SOC 기능 복합시설을 900곳 이상 공급해 읍면 소재지에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건강증진센터 등 시설이 밀집된 복합 단지를 조성하거나 복합 시설을 신축·리모델링하면서, 복합시설은 지난해 369곳, 올해 119곳을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총 488개 지구에서 1개 이상 세워질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 사무관의 발표 외에 농촌생활 SOC와 공동체 관련 주제 발표 3건과 지정토론 및 방청석 토론 순으로 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한 '3회 농촌공간포럼'이 최근 열렸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농촌지역 900곳에 행정복지센터·의료보건·금융시설 등을 한데 모은 '농촌생활SOC 기능 복합시설' (가칭 '다가치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어촌공사 제공>

행했다.

김주원 강원연구원 박사는 '농촌 생활SOC와 공동체 활성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인구 규모가 크고 중심지와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마을 사업 경험이 많은 마을의 생활 SOC 정비수준이 높은 곳이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민철 흥성군 오누리권역 위원장(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은 충남 홍성의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발표했다. 흥성군 흥동면과 장곡면 의사·농업인·지역주민 등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농업을 활용한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조

합은 교육 수요자 중 일부를 농장에 고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지역 필요에 따라 구성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실행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승화 농어촌개발이사는 "농촌 생활인프라 확충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며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생활SOC확대에 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호치민 지사 개소...아세안 진출 속도

현지 소비 트렌드 등 반영 중소 수출업체 진출 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베트남 호치민 지사가 최근 개소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사진>

개소식에는 이병호 공사 사장과 임재훈 호치민 총영사, 한국농식품 수입업체·유통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호치민 지사는 앞으로 중소 수출업체의 호치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대아세안 교역의 절반 가까이(43%)를 차지하는 아세안 1위 교역국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한국 농식품의 베트남 수출은 지난해 대비 27% 증가한 1억6200만 달러(740억 원)로

전체 4위를 차지했다.

공사는 아세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베트남 하노이 지사를 열었다. 지난해 8월에는 하노이 지사를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총괄하는 아세안지역본부로 승격시키기도 했다.

또 공사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출연한 광고를 베트남 대형 유통매장, 영화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박 감독은 오는 10월 호치민에서 열리는 'K-푸드 페어'에 초청될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베트남은 매년 6%대 높은 경제성장률과 평균 연령이 30세인 젊은 성장국가"라며 "현지 소비자의 소비패턴, 마케팅 트렌드 등을 반영해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전국 직거래장터 정보 한 눈에

바로정보사이트 운영 위치·개장일 등 담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다.

공사는 21일 "장터 직거래장터 33곳과 테마형 13곳 등 총 46곳의 위치와 개장일 등 정보를 담은 바로정보사이트(baroinfo.com)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신규지역 장터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터개설 및 운영지원에 나섰다.

전남 지역에서는 매주 토요일 열리는 '순천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와 오는 8월 22-24일 3일간 열리는 '광양농부 웰니스 팜엔파티' 등 2곳이 마련됐다.

이외 서울 6곳, 부산 2곳, 대구 2곳, 인천 1곳, 대전 2곳, 세종 1곳, 경기 9곳, 강원 1곳, 충북 5곳, 충남 3곳, 전북 3곳, 경북 8곳, 경남 1곳 등 총 46개

소가 운영 중이거나 올해 개소할 계획이다.

장터 직거래장터는 대형아파트, 공원, 주차장 등 도심 속 고정 유휴 부지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테마형 직거래장터는 지역축제와 연계하거나 계절과일 출하시기 등 특정시기에 개최된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시식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바로정보사이트에서는 이외 광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문화점과 담양 고서농협로컬푸드직매장 등 광주·전남 직거래 판매장 21곳에 대한 위치와 운영시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전남지역 신시장터 연계소포물 30곳에 대한 정보도 실렸다.

정성남 공사 유통이사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중소 생산농가에게는 새로운 판로의 기회를, 도심 속 소비자에게는 제철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콘텐츠로 세상 연결"

한콘진, 새 비전·CI 공개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새로운 기업 이미지(CI)를 공개했다.

한콘진은 최근 연 10주년 기념식에서 급변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환경에 변화에 발맞춘 '콘텐츠 넷 코리아' (Content 'Net' Korea) 비전을 발표했다.

'콘텐츠 넷 코리아'는 콘텐츠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며 나아가 국가를 풍요롭게 만드는 기관으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한콘진은 새 비전을 기반으로 장르 구분이나 지원방식 등을 과감히 바꾸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 재편을 다짐했다.

한콘진이 새롭게 선보인 CI는 초연결과 무경계의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확장성을 상징한다. /박성진 기자 skypark@

한전KDN '발전설비 무선망 감시·진단 시스템' 실증

스마트발전소 효율 극대화

한전KDN과 한국동서발전은 21일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에서 '자가무선망 및 에너지 하베스팅(자기발전) 기술을 이용한 발전설비 감시·진단 시스템 개발과제' 실증작업(사진)을 완료했다. 이날 실증에는 전자부품연구원·쉴렉스 등이 참여했다.

실증된 시스템은 당진화력본부 9호기 전자제어동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해 발전설비의 상태를 감시·진단하고 결과를 한국동서발전의 자가무선망(DMR)과 사물인터넷(IoT)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췄다. 고·저압모터에 부착된 26개의 IoT 센서와 동서발전 재난·안전 통신망은 이상 상황을 관리자에게 알리게 된다.



이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서 발전 설비의 감시·진단 범위확대와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설비운영, 점검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전KDN과 한국동서발전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모든 발전소를 대상으로 감시·진단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한 번 시공으로 고민 끝!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기 간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 (총 4회)

시 간 오후 3시 ~ 6시

장 소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동구 금남로 221)

대 상 중3+고등학생(20명) + 학부모(10명)

지 원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신 청 ☎ 010-5205-5668 (문자로 연락 바람·단체 지원 환영)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1.강사:심숙옥박사 2.강사:한승원작가 3.토론:박해용박사
2 5월24일(금)15~18시	2. 소설강의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1.강사:심숙옥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3 5월30일(목)15~18시	3. 조별토론	1.강사:심숙옥박사 2.강사:장정희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4 5월31일(금)15~18시		

●주관 | 소크라테스대화법연구소 ●주최 |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행